

# 70여개국 다양각색 5000점...골라보는 재미 쏠쏠



## 광주 예술의 거리 옛 대동갤러리에 문 연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유럽 화폐·아프리카 조각상...

사업가 김상덕 관장 25년 모아  
박물관 꾸려 일반에 무료 공개

내달 28일까지 '쇼나 조각전'

7일 짐바브웨 조각가 초청 실현



광주에서 무역회사 '진한통상'과 'JH금융'을 운영하는 김상덕(60) 대표이사는 약 25년 전 외국을 나갈 때마다 기념하기 위해 열쇠고리 등 조그만 장식품을 모으기 시작했다. 소품으로 시작한 기념품 수집은 국가의 특성을 나타내는 조각 등으로 범위를 넓혔고 보관하던 장고를 가득 채웠다. 그동안 유럽,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70여 개국을 방문하며 모은 기념품은 점시 600여점, 화폐 1000여점 등 21종류 약 5000점에 달했다. 구입 가격도 25만원부터 약 3000만원까지 다양하다.

김 대표는 수집품이 어느 정도 모이자 혼자만 보고 즐기보다는 여러 사람과 즐거움을 공유하고 위해 박물관 설립을 생각했다. 광주시 우수·공후협회장, 세종발전연구원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던 중 광주 문화 발전에도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마땅한 장소가 없어 계속 미루던 차에 때마침 지난해 10월 광주시 동구 대동갤러리가 매물로 나왔다. 즉시 구입해 자신의 소장품을 전시한 후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개관을 앞두고 있다.

박물관은 입구부터 약 2m 높이의 아프리카 조각작품을 배치시켜 관람객들을 반긴다.

내부는 광주에서 넓기로 손꼽혔던 대동갤러리의 전시공간(600㎡)을 그대로 사용하는 만큼 큰 규모가 눈길을 끈다. 벽면에 설치된 수십개의 장식장 안으로 비행기 모형, 나무 동물 인형, 수석(水石) 등 높이 약 20cm 크기 장식품 수천개를 볼 수 있다.

스탈린, 모짜르트, 아인슈타인, 베토벤 등 인물 모형 옆에는 한국, 중국, 일본 전통 의상 인형을 배치시키는 등 각 종류별로 구분지어놔다. 나무를 깎아 만든 부엉이 인형이나 거북이 등껍질 공예품, 외국 나무랄 등도 보인다.

장식장 주위에는 높이 1m 내외의 조각품이 자리잡고 있다. 아프리카 작품이 주를 이루지만 한국작가들의 작품도 곳곳에 설치돼 있다. 이외

에도 모형 한국 전통탑, 지름 1m의 대형 지구본, 유럽 철갑옷 등도 눈에 띈다.

입구 반대편 벽에는 선수상(船首像), 옛날 총, 방패, 아프리카 전통 악기 등 구경하기 힘든 장식품들도 만날 수 있다.

전시장 한편에서는 박물관 부설 갤러리도 운영된다. 약 40평(130㎡) 규모로 김관장이 소장한 미술작품 130여점 중에서 선정한 일부를 걸어놓을 예정이다.

또 박물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은태(69) 전 조선대 미술대학장을 명예관장으로 선임했다. 정 명예관장은 무보수로 큐레이터 업무까지 겸직하며 지역 젊은 작가들을 지원할 생각이다.

박물관측은 매년 유럽 가구 등 전세계 장식이나 조각 트렌드를 광주에 소개하는 기획전도 개최할 계획이다.

당분간 무료로 운영되지만 하반기부터는 학생 2000원, 일반인 3000원의 입장료를 받을 예정이다.

김관장은 "아직까지는 제작 국가나 작품을 설명하는 안내문이 없지만 차츰 보완해 국가별, 종류별로 정리할 생각이다"며 "이제는 외국을 나가면 먼저 어디에 어떤 작품이 있는지부터 찾는 등 앞으로 좋은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물관은 7일 공식 개관과 함께 아프리카 짐바브웨 쇼나조각 약 450점을 선보이는 '쇼나조각전'을 2월28일까지 진행한다. 쇼나(shona)는 짐바브웨 인구의 약 70%를 차지하는 부족으로 조각 부문에서 세계 미술계의 각광을 받고 있다. 이들은 원석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면서 스케치나 밑그림 없이 오직 정과 망치로만 작업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높이 약 30cm부터 235cm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쇼나부족의 애환과 꿈을 표현하고 있다. 이날 오후 5시에 열리는 개관식에서는 짐바브웨에서 3대째 조각을 하고 있는 존 타이(John Type) 작가를 초청해 1m 크기가 넘는 조각품 제작 모습을 실연할 예정이다. 문의 062-222-0072. /글·사진=김용희기자 kimyh@

▲최근 광주시 동구 옛 대동갤러리 자리에 문을 연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김상덕 관장이 지난 25년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약 4500점의 장식·조각품이 전시돼있다.



## '겨울 노래'로 여는 새해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 음악회

8일 임동 강숙자오페라라인 연주홀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회장 황선욱)가 2016년 첫 행사를 진행한다. 8일 오후 7시30분 광주시 북구 임동 강숙자오페라라인 연주홀.

'눈 오는 날의 회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겨울을 노래한 곡들과 아름다운 우리가곡을 함께 만나는 시간이다.

초대 성악가는 테너 최재훈씨로 '독도, 너는 동해에 서 있구나'(김원자 시, 오숙자 곡)와 '벚노래'(석호 시, 조두남 곡)를 들려준다. 또 여성중창단 '꿈오라기'가 '호숫가에서', '사랑하는 내 남이여'를 연주하며 꿈나무 연주로 선창조 6학년 김유진 양이 '달팽이의 하루'와 '넋이 오시는지'를 부른다. 회원 연주는 차성수씨의 '그리워', 김희숙씨의 '눈 오는 날의 회상', 윤민재씨의 '상사화', 안규금·김정자 부부의 '사랑의 노래'다.

겨울이면 많이 불리는 심음문 시, 임금수 곡 '눈 오는 날의 회상'을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마련하며 참가자들이 모두 함께 '겨울나무', '그집 앞', '옛 이야기', '바우고개', '희망의 나라로', '벚노래' 등을 부르는 시간도 갖는다.

1만원을 내면 차와 간단한 먹을 거리를 제공한다. cafe.daum.net/gjkrsong 문의 010-2694-4592, 062-575-599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목포 해양유물전시관 제3·4전시실

'세계의 배·한국의 배 역사실' 새 단장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해양유물전시관 제3·4 전시실을 '세계의 배·한국의 배 역사실'로 새 단장하고 5일 오후 2시 개관한다. 3·4 전시실은 기존에 '어촌민속실'과 '선박사실'로 운영됐었다.

이번에 새롭게 꾸며진 제3전시실(세계의 배)과 제4전시실(한국의 배)은 세계 각국의 배(船)를 주제로 하여 인류가 걸어온 해양문화의 발자취를 재조명했다.

제3전시실 '세계의 배 역사실'은 '배'라는 매개체를 활용한 인류의 세계사적 공간 확장과 교류 등을 다루고 있다. 제1부에서는 북미와 아프리카 등 선사 시대 배의 진화를 통해 시원적 배의 발달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제2부에서는 고대 그리스와 지중해 지역 선박의 발전을 통한 유럽문명의 발달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제3부에서는 바이킹의 활동과 유럽 문명의 확대, 지리상의 발견과 범선의 활동, 산업혁명에 따른 운송수단의 발달과 함께 세계사적 공간의 확대과정을 다뤘다.

제4전시실 '한국의 배 역사실'에서는 5부로 나누어 우리나라를 살핀다. 제1부에서 4부까지는 선사 시대, 삼국과 통일 신라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의 해상활동을 시대별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제5부에서는 한선(韓船)과 외래선(外來船)을 한곳에서 볼 수 있어 우리 해양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문의 061-270-204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삶의 불모성에 천착한 따뜻한 언어의 미학

박성천 소설집

부족의 삶

박성천 작가의 소설은 삶의 이면에 어둡고 깊게 드리워진, 아픔과 슬픔을 예리하게 들여다본다. 현실에 짓눌린 등장인물들의 삶은 결코 선불리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하고도 무참하다. 일견 평화로워 보이는 일상 너머에 무겁게 자리한 삶은 고해(苦海)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삶의 고통을 극복해나가는 인물들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은 따뜻하면서도 냉엄하다. 작가는 조금의 과장이나 에두름 없이 날것 그대로를 응시한다. 박성천은 자신만의 소설작법을 독심 있게 밀고나가면서, 독창적이고도 완성도 높은 형상화라는 그만의 미학을 성취해나가는 데서 빛난다.

- 문순태 소설가

박성천 소설의 미덕은 삶의 비무함과 냉혹함을 감싸 안는 작가의 따뜻한 시선과 인간적인 태도에 있다. 인물들의 처지는 하나같이 외롭고 궁핍하고 궁지에 몰려 있는데, 그러한 상황을 주목하고 서사적으로 이끌어나간 작가의 독심이 은근하고 순정적이다. 무한 경쟁 체제 속에 낙오된 무력한 소시민의 지난한 현실을 예리하면서도 온기 가득한 삶의 언어로 빚어내고 있어 희귀한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

- 함정임 소설가·동아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박성천 저 | 224쪽 | 컬러 | 값 12,000원